

제주도의 전통옹기

전국문화재 전문위원 강창언

1. 들어가며

제주옹기가 복원 된지도 10여년이 흘렀다. 2000년도에 제주도에촌에서 복원에 성공한 결과 물들이 공개되면서 제주전통옹기가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무관심 속에서 잊혀져버렸던 제주전통옹기가 지금은 세간에 관심 대상이 되었다. 무엇 때문에 제주의 전통옹기가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일까? 제주전통옹기 가운데 허벽의 용적을 중심으로 그 일련의 상황들을 재조명해 보기로 하겠다.

2. 역사

연관성을 제외한 관련성을 가지고 물질적 고증을 통한 접근에 의하면, 제주 옹기는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유적에서 출토된 무문토기와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였다. 바닥과 몸통을 붙여가는 방법, 그리고 형태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었다. 시기는 500년 내외이다.

1271 ~ 1973년 사이에 고려정규군과 고려삼별초 군사들이 제주에 입도했다. 군사들은 방어용 석성과 토성들을 축조하였다. 향과두성 내외에는 당시에 사용되었던 가마터 2곳을 보고하였다. 1곳은 지상이 모두 파괴되어 가마의 양상을 파악할 수 없어 지점을 보고하였으며, 1곳은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데, 지금 전해지는 석요(石窯)와 흡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1488년의 負瓶村婦汲泉去(허벽 진 촌아낙네 물

길러 샘으로 가고)란 기록이다. 최부(崔溥)의 탐라시 삼십오절구 가운데 28절구에 있다.

1658년 장수당록(藏修堂記)에 전하는 내용이 다. 藏修堂記 越在戊戌春濟州牧缺…本末云…庚子四月日牧使李?記…耽羅在南海中…始學舍使晉鎔主其事問材問焉?則伐山浮海是資問瓦焉?則陶土…(‘장수당기… 학사를 짓기 시작하여 김진용이 주관였다. 재목은 한라산에서 벌채하여 바다로 운반하고 기와는 도기(항아리)를 만드는 양질의 점토(도토)를 이용하겠다.’는 내용이다.)

1678년경에는 家家瓮裏養蛇盃 負瓶村婦杵歌 苦(집집마다 항아리에는 굶을 할 때 울릴 술이 있고, ‘허벽 진 촌 아낙네 구슬픈 방아노래’)라는 내용이 있다. 점필재(?畢齋)의 탁라가(?羅歌) 14절구의 시운을 따라 쓴 이증(李增)목사의 기록이다.

1700년대에는 大靜懸…道路…西北小路由西五里程茄味藪瓮店至…(‘대정현성 서북 소로를 5리 정도가면 “정가미수”에 제주옹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옹점이 있다.’)라는 濟州邑誌(제주읍지)의 기록이다.

1994년 필자에 의해 제주도요지에 대한 분포, 성격, 크기, 양상 등이 보고되었다. 제주전역을 조사한 것은 최초의 기초 보고서이다.

2000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소재의 제주도 예촌에서 제주전통옹기의 기술, 가마, 등 전반적인 것의 복원에 성공하여 그 결과물이 공개되었다.

2001년 제주도에촌에서 제주 점토를 이용하여 저온, 중온, 고온 도자기를 만드는 데 성공하여 그 결과물들이 도내의 중요 박물관 3곳에 기증되었다.

3. 특징

제주전통옹기에 대해 요약하면, 점토가 ‘고냉이찰흙’이라고 하는 제주흙이다. KS L 4007-2001(습식분석)에 의하면 규소 59.4%·알루미늄 17.5%·칼슘 0.38%·마그네슘 1.01%·철 9.77%·칼륨 1.34%·나트륨 0.56%·티탄 1.76%·망간 0.18%의 구성비이다.

제작 방법이 특이하다. 일반적으로 점토 덩어리를 물레에 올려서 회전하며 속을 파내는 성형, 점토를 둥글게 말아서 나선형으로 쌓아 올리는 성형이 보편적인데 비해, 제주도와 전라도 일부 지방에서는 흙판을 만들어서 파이프처럼 통으로 붙여가는 방식을 취한다. 제주도의 경우, 모두 ‘토레미’라고 하는 흙판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능인을 따로 두었으며 그를 ‘건애꾼’이라 했다. ‘토레미’ 제작 방법이 두 지역을 제외하고 국내 외에 알려지는 게 없다.

건조방법이 특이하다. 제작된 옹기는 돌과 흙으로 만들어진 ‘움집’이라는 곳에 6~10개월 정도 보관된다. 일반적으로 건조기간이 1~2개월 정도에 비해 장기간 보관이다.

소성 재료가 다르다. 국내외의 전통가마들을 이칭하여 ‘장작가마’라고도 한다. 현대화된 기름, 가스, 전기를 사용하는 가마들이 나타나면서 연료 구분으로 분류된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는 장작을 사용하지 않고 나뭇가지나, 닳으로 벨 수 있는 작은 나무를 잘라 묶어서 사용한다. 그것을 ‘섬피’라고 하며 장작과는 구분되는 것이며, ‘섬피’를 때는 가마는 국내외에서 보고된 사례가 없다.

가마가 희귀하다. 국내외에서 석요(石窯)는 제

주도에서만 보고된다. 세계의 가마는 그 재료가 모두 흙이다. 제주도에서는 현무암을 가지고 가마를 축조했다.

이 외에도 허벅과 같은 형태에서 보이는 특이성도 있겠으나, 제주전통옹기는 환경과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을 만큼 깨끗하다는 데 의의 있다고 하겠다.

4. 양상

제주전통옹기는 유약 없이 그 효과를 얻는다. 유약을 칠하지 않는 옹기는 국내 외에 흔하다. 그러나 유약을 칠하지 않고 유약을 칠해서 구워낸 것처럼 유약의 효과를 갖는 것은 유일하다. 석요에 옹기를 넣고 대략 3박 4일 동안 소성되는데 불의 온도에 의해 그려지고 표현되는 옹기의 표면 발색은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의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의도된 문양

일단 사람들 손에서 제작된 것에는 문양이 있다. 그것은 사람의 흔적이 머물렀기 때문이다.

전혀 없는 것은 무문(無紋)이라고 하여 문양을 하지 않은 것도 문양이라 이해될 만큼 문양들은 다양하다. 지역, 국가 별로 즐겨 사용되는 문양들이 있는데 제주전통옹기에서 나타나는 문양들도 예외는 아니다.

제주전통옹기에는 ‘보로롱’ 문양이 있다. 대부분 옹기의 몸통부분에 그려지는 것이다. 대나무를 얇게 깎아서 만든 보로롱이라는 대(竹)칼을 기벽에 대고 튕겨 만든다. 마치 빗살처럼 그려지는데 제주도 옹기 가운데 작은 기물을 제외한 전 기물에서 그려지는 대표적인 문양이다.

파도문은 허벅이나 통개(항아리) 어깨 부위에 그려지는 문양이다. 보로롱이 끝 부분으로 그려지는데 1-3개의 선을 위주로 하여 파도처럼 그려진다. 너울문은 파도문과 흡사하게 그려지는데

반대로 문양이 그려진다.

선문은 1개 또는 3개의 선으로 기물이 어깨부 위에 가로로 그려진다.

수레문은 두들겨서 만드는 '수레착'에서 나타나는 문양으로 사선문, 장선문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조막문은 그릇의 안쪽을 받치는 조막이라는 도구에서 얻어지는 문양으로 원문, 방사선문, 격자문 등으로 나타난다.

명문은 그릇의 어깨부위에 이름, 제작년 등으로 나타난다.

이 외에도 인화문과 같은 것들이 있는 항아리도 간혹 눈에 띈다.

2) 자연문양

여기에서 말하려는 자연문양은 앞서 말한 무문과는 그 의가 다르다. 제주전통옹기에서는 사람이 전혀 의도 하지 않았는데 그려지는 문양들이 있다. 불, 바람, 물, 흙, 나무들이 제 모습을 변화하며 서로 교합하거나 흩어지며 다시 안착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그려진 것이다.

은하수문이 있다. 소성시 불의 힘으로 얻어지는 자연적인 문양으로 옹기의 표면에 수 없이 많은 점들로 형상화 되어 나타난다. 황색·갈색·녹색 등 다양하다.

달무리문은 허벅의 허깨부위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형상인데 마치 달무리 같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이는 허벅을 재입하는 과정에서 '장태'라는 뚜껑을 덮는 데 그 흔적으로 인한 것이다.

불꽃문은 가마안에서 소성시에 그려지는 불 무늬로 기벽에 형상화된 것이다. 전통가마는 전기·가스·기름처럼 연속해서 연료가 주입되는 연속 가마가 아니고 장작을 손으로 투입하는 불 연속 가마이다. 순간적으로 온도의 높낮이가 이뤄지는데 그 흔적이 머물러 그려진 것이다.

용암문은 소성시에 재·물·흙 등이 화학반응

속에서 얻어진 현상으로 기벽에 응화현상을 일컫는다. 마치 화산이 폭발할 때의 용암이 녹아 흐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소라문은 재입시 흔들림을 막고 소성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 기벽에 그 흔적이 남아 붙여진 것이다.

진복문은 통개처럼 큰 규모의 기물에 기벽에 나타나는 것으로 재입시 그 틈새를 없애는 것인데 소성후 흔적이 남을 때가 있다.

조개문은 기물이 붙지 않도록 조개껍질을 놓은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말한다.

원문은 기물을 가마안에 재입한 후에 나타나는 문양으로 그릇의 바닥 형태가 찍혀 있는 것을 말한다.

5. 용적

제주전통옹기들은 실외용, 실내용인 일반생활 용구를 비롯해 상업용 용구 등 다양하다.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던 것은 대부분 여성용들이다. 특히 음료수와 생활용수의 대부분을 담당했던 여성들은 어떤 무게를 감당해야 하였을까에 접근해 보려고 한다. 제주전통옹기 가운데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허벅을 그 대상으로 한다. 표본은 제주도예촌 자료실에 보관되어 있는 허벅 유물 200여점 가운데 표준이 될만한 10점을 선별하여 측정하였다.

제주전통옹기(허벅) 용적 조사표

연 번	높이(m)	입지름(m)	배지름(m)	굽지름(m)	무게(kg)	용적(l)	비 고
1	35.0	10.8	33.3	22.9	4.96	20.4	25.36
2	35.7	10.8	32.3	21.8	4.97	21.0	25.97
3	39.6	10.3	33.9	21.2	5.39	24.2	29.59
4	35.5	9.7	32.9	21.4	5.30	18.6	23.9
5	35.7	10.3	32.3	22.4	5.51	20.6	26.11
6	34.0	9.7	32.7	21.1	4.66	20.0	24.66
7	34.0	9.9	33.7	19.7	3.92	18.2	22.12
8	36.8	9.8	32.2	19.8	4.45	20.1	24.55
9	33.2	9.9	30.8	19.8	4.37	17.3	21.67
10	36.0	10.5	33.8	20.3	5.17	20.7	25.87
평 균	35.55	10.17	32.79	21.04	4.87	20.11	24.98

(2006. 8. 30.)

위의 것은 허벅류 가운데서 가장 많이 활용된 여자 어른용 허벅이다. 물을 길고 대오리로 엮은 '물구덕'에 넣고 등에 지고 다닌다. 대략 1~2km를 왕복하는 것을 보통으로 삼으면, 허벅을 진 여자들은 갈 때는 4.87+1.35(물구덕 중량), 즉 6.22kg을 진다. 허벅 4.87kg에 물 20.11 l 정도를 길고, 물구덕 1.35kg에 넣으면 26.33kg 지고 다닌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루 '서너번(3~4회)'에서 많게는 '대여섯번(5~6회)'를 지고 다녔다. 제주 여성들은 하루에 4.5회의 허벅을 물 90.49 l를 운반했으며, 한달에 2,114 l 정도이고 일년에 대략 2,714 l, 즉 2.7t 정도를 운반했다.

왕복 운반 무게는 갈 때 6.22kg이고, 물을 길고 올 때는 26.33kg이다. 대략 평균 횟수 4.5회, 평균 길이 1.5km 왕복13.5km에 146.47kg 정도를 운반했다. 한 달에는 405km의 거리에 4,394kg인 4.3t을 지고 운반했다. 일년에는 5,2731kg으로 52.7t을 지고 4,927km운반했다. 40년 가량 허벅을 지고 다닌 무게는 2,000t 정도이며, 길이는 197,100km(지구둘레 40,077km의 5배 가량)이다. 여기에 거름용 '오줌허벅', 경조사시에 '죽허벅'을 더하면 그 수치는 높게 올라간다.



6. 전승과 개발

1) 조선시대의 시도

예전에 가마터들을 답사하다가 의아스러운 일을 경험했던 적이 있다. 제주 전통옹기는 유약을 칠하지 않고 발색의 효과를 얻는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유약을 칠한 옹기들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 원인의 접근하는 데 처음과 끝이 없어 혼란스런 일이었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등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으며 추정할 수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3백년 전후의 시기에 천연옹기를 생산하던 석요장(石窯場;가마가 무리를 이룬 곳)에서 시도되었던 것이었다.

제주 전통옹기는 외적인 강한 이미지, 그리고 자연스런 순박한 멋이 있지만 내외의 면이 거친 것도 사실이다. 소품들을 만들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것을 당시의 도공들도 느꼈을 것이다. 제주도에는 유약의 기본적 성분인 규석, 장석, 석회석 등의 광물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주 도공들은 재(灰)와 진흙 등을 토대로 시도하였으며 소품들이 보급되었다. 당시의 도공들은 성공을 거둔 셈이다. 그러나 계속 유지 되지 못하였다. 아무래도 천연옹기에 밀린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에 대한 당시의 도공들에 대한 업적은 평가될 일이다.

2) 현대의 시도

현대 초, 중기경에 제주 전통옹기는 생산이 보급에 못 미치는 절정기에 이르렀다. 당시 서귀포시 대정읍과 그 일대에 집중되었던 옹기 생산 작업들이 제주시와 애월읍 지경으로 확장되었지만, 결국 단기간에 중단되거나 다시 대정읍으로 귀향하여 작업이 이뤄진 예들이었다.

이미 본 작업은 1960년대 들어서면서 사양길로 접어들었고, 마지막으로 불을 지핀 것이 1969년 구역리 '동쿨'이다. 그러나 그 당시는 굽지 않은 그릇들을 모아서 때는 형식이었으며, 그릇은 나오지 못했다. 1968년 대정읍 신도리 속칭, 일곱드르 노랑굴이 가장 마지막으로 불을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모든 과정들의 기록이 전무했다. 모두가 복원하는 자의 몫이다. 지금도 제주 전통옹기에 대

한 사실에 접근하는 연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외형적으로 모방하는 데 급급한 것도 사실이다. '제주 옹기의 복원 성공에 대한 찬사마저 방관자의 사치에 불과하다.'는 말이 기록될 만큼 투쟁의 복원이다. 제주전통옹기의 과정들을 올바르게 전승하고 그 기술들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도들이 이뤄져야 한다.

7. 나오며

세계 도자사에서 유일한 제주의 석요(石窯), 천연 발색되는 제주옹기의 특징으로 인해 제주전통 옹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언제부터인가 국내외에서 연구와 관람을 위해 찾아오는 전문가, 관광객들의 빈도수가 잦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기능을 체험하는 전수관, 우수하다는 제주전통옹기를 보여 줄 수 있는 전시관은 아예 없을뿐더러 그들을 위한 편이시설도 없다. 물론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승 작업이 진행 되서는 곤란

하다.

제주의 고유문화가 한 개인이나 단체에서 소유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관계 당국이나 학술단체에서 그것을 개인이 하는 일처럼 그대로 방치, 방관한다면 그 또한 어리석은 일이다. 국내외적으로 희귀한 제주의 전통옹기와 기능인의 보호 육성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급히 진행시켜야 한다. 한 손에도 남을 수효의 전통 기능인들이 모두 돌아가시기 전에 말이다.

제주도에서 민구 가운데서 상징처럼 이해되고, 국내외로 관광 상품화되어 알려지고 있는 것이 '허벅'이다.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된 '허벅' 한 점도 없으며, 따라서 대표적인 허벅도 없다. 그만큼 우리문화 유산에 대한 인식 결여인 셈이다. 허벅 하나로서의 제주옹기의 이해는 곤란하다. 제주 여성이 1년 50여 톤, 40년을 운반했다면 2,000 톤을 등에 지고 다녔던 우리의 역사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 참고문헌

- 1) 李齊賢, 1287 ~ 1367, 《國譯益齋集 1979》민족문화추진위원회.
- 2) 李益泰, 1694 ~ 1696, 《知瀛錄》(金益洙 譯 1997) 濟州文化院.
- 3) 金淨, 1520 ~ 1521, 《?菴集》(洪貞杓 譯 1976) 제주도교육위원회.
- 4) 李增, 《南?日錄》(金益洙 譯 2001), 濟州文化院.
- 5) 李元鎮, 1651 ~ 1653, 《耽羅志》(金奉玉 譯 1976), 제주도교육위원회.
- 6) 〈大靜懸〉, 1700년대, 《濟州邑誌》.
- 7) 高炳五, 1955년경 《元大靜郡誌》.
- 8) 강창언 · 이경효, 2000, 《제주전통도예》가시아히출판사.
- 9) 허은숙, 2005, 《제주옹기문양고찰》, 제주도에 위크숍발표요지.
- 10) 김유정, 2006, 《제주옹기, 화산폭발의 생명력을 기억하다》, 《삶과 문화 5,6월호》제주문화예술재단.
- 11) 강창언, 1994, 《제주도요지 조사보고》, 제주도.
- 12) ----, 2002, 《제주옹기와 제주자기》, 《삶과 문화》, 제주문화예술재단.
- 13) ----, 2006, 《제주옹기공예》, 《제주도지 제7권》, 제주도.



● **노랑허벅**

물을 길고 대오리로 엮은 구덕에 넣어 등에 지고 다니는 물그릇의 일종이다. 노랑허벅은 노랑굴이라는 석요(石窯)에서 섭씨 1200℃ 내외에서 구워진다. 표면의 갈색을 띠며 자연발색이 이뤄져 있다. 물 약 20l가 들어간다.

● **검은허벅**

노랑허벅과 크기와 용량이 비슷하다. 검은굴이라는 석요(石窯)에서 섭씨 800℃ 내외에서 구워진다. 노랑허벅에 비해 강도가 약하며 가격도 저렴하였다.

● **보로롱 문양**

제주전통옹기의 상징문양이라 할 수 있는 보로롱 문양은 성형할 때 표면에 대칼을 대고 미세한 떨림으로 표현된다. 유약을 칠하지 않기 때문에 표면에 뚜렷이 나타나서 마치 비가 내리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 **딱도 문양**

주로 어깨 부위에 표현되는 선(線)무늬이다. 3개의 선들이 파상을 이루며 연이어진다.

● **불꽃 문양**

석요안에서 끊임없이 이뤄지는 온도의 변화 속에서 순간적으로 그려진 자연문양이다. 갈색을 이루는 노랑그릇에서 나타난다.

● **은이수 문양**

노랑그릇에서 나타나는 문양이다. 절정기에서 재(灰)·바람·불·흙 등이 변화하며 그려지는 것이다.

● **용암 문양**

노랑굴이라는 석요(石窯)는 대략 3박4일 정도 기간 동안 소성하는 데 최고조의 온도가 섭씨 1200℃ 내외이다. 옹기의 표면에 돌이 녹아 흐르다 굳어버린 것이다.